

金 時 萬 教授指導  
碩士學位 請求作品研究論文

生成이미지에 관한 陶磁造形 研究

2006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工藝學科

柳 明 和

# 生成이미지에 관한 陶磁造形 研究

金 時 萬 教授指導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6年 5月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工藝學科

柳 明 和

# 認 准 書

柳 明 和의 碩士學位 論文으로 認准함

審査委員\_\_\_\_\_ ㊟

審査委員\_\_\_\_\_ ㊟

審査委員\_\_\_\_\_ ㊟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 論 文 概 要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물질적인 풍요로움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에도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 왔으나 급속한 산업화의 발달로 인해 자연에 대한 고마움과 가치들에 소홀히 하려는 경향을 보여 왔다. 앞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고양시키며, 건강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연의 생명과 생동함에 우리의 모습을 반추하고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주제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가 자칫 잃어버리기 쉬운 자연에 대한 감동과 아쉬움을 점토의 물성을 이용한 조형작업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고 순화 할 수 있다는 예술의 가능성을 천착하고자 하였다.

이는 현대도자조형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과 가치에 주목해 가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 때임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연구의 소재가 된 봄, 꽃, 별, 나무, 햇살 등 자연의 생동하는 모습에서 인간이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들을 되새기며, 추상적인 표현들은 자연의 생명력이 시각화된 것인 동시에 잃어버린 자연에 대한 우리들의 향수를 자극 시키는 형태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흙의 점성을 이용해 쌓아 올리는 조형적 방법을 적용하여 나타내고자 하였다.

색상은 자연색에 가까운 서정적이며 편안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테라시질 레타를 주로 사용 하였고 부분적으로 명료하고 안정감 있는 청·녹색의 생유를 시유하기도 하였다.

오늘날 자연과 인간의 교감을 통해 자연을 더 사랑하게 되었으며 더불어 공존해 나간다는 나뉠대로의 조형 논리로 정의하고자 하였다.

# 目 次

## 論 文 概 要

<b>I. 序 論</b> .....	1
1. 研究目的.....	1
2. 研究內容 및 方法.....	2
<b>II. 本 論</b> .....	4
1. 生成의 意味.....	4
2. 生成 이미지의 造形的 考察.....	5
3. 生成에 관한 作品研究.....	6
4. 試作品 制作 및 說明.....	11
1) 制作意圖.....	11
2) 制作過程.....	13
(1) 胎土.....	13
(2) 成形.....	13
(3) 裝飾 및 施釉.....	14
(4) 燒成.....	16
3) 試作品 說明.....	17
<b>III. 結 論</b> .....	27

## 參 考 文 獻

## 表 目 次

【표 1】 조합토의 조합비.....	13
【표 2】 유약 조합비.....	15
【표 3】 테라시질레타의 조합비.....	15
【표 4】 테라시질레타 안료 혼합비.....	15
【표 5】 소성 온도표.....	16

## 圖 目 次

【도판 1】 No.5	9
【도판 2】 성장	9
【도판 3】 태동3	9
【도판 4】 인간과 사랑	9
【도판 5】 Cornucopia	10
【도판 6】 Dynamic of nature	10
【도판 7】 Work80-1	10
【도판 8】 봄의 소리	10

## 試 作 品 目 次

【시작품 1】 생성-氣運·····	17
【시작품 2】 생성-공명·····	18
【시작품 3】 생성-動·····	19
【시작품 4】 생성-고요함·····	20
【시작품 5】 생성-빛·····	21
【시작품 6】 생성-관계·····	22
【시작품 7】 생성-향기·····	23
【시작품 8】 생성-바다·····	24
【시작품 9】 생성-思索·····	25
【시작품 10】 생성-Passion·····	26

# I. 序 論

## 1. 研究目的

자연은 계절의 변화와 더불어 각가지 형과 색으로 변한다. 그 속에는 기쁨이 있고, 생동함이 있으며, 변화하는 것에 대한 준비와 에너지가 있다.

그러한 변화는 새로운 환경요인과 인간의 감정을 순화시키는 기능을 동반한다. 이것은 인간이 자연과 떨어져 있지 않으며 서로를 필요로 하고 보완하는 공존의 관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이러한 자연의 특성은 현대화의 진행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실들이며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준다.

생성이란 인간의 삶을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자연의 근원적인 힘이다. 인간이 자연을 통해서 배우며 함께 할 수 있는 가치와 새롭게 창조하는 아름다움은 바로 이 생성의 힘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생성 이미지를 담은 흙의 물성을 조형의 언어로 다룬다면 자연스럽게 잃어버린 자연에 대한 생동감을 복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본 논문은 생성 이미지가 점토를 통해 어떻게 형상화 되었는지를 조형적 언어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자연을 통해 ‘나’를 발견하며 이를 반영한 조형물의 모티브와 구체적인 형상화 과정을 살피는 데에 그 목적을 두었다.

## 2. 研究内容 및 方法

동양과 서양의 자연관은 달리 해석되고 있다.

서양은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여겼는가 하면, 동양에서는 ‘自然’의 한자어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자연을 각각으로 해석한 것은 자연이 준 인간의 가치 차이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이 자연을 경험하면서 성찰한 심인적 입장을 조형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이것은 인간 내면의 감성을 자극하고 다양한 철학적 관점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자연을 읽고 다룰 줄 안다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며,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자연의 성질을 조형적 의미로 다가감으로 아름다움에 대한 성찰과 삶의 진리에 대한 성숙함을 지향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봄, 나무, 은하수, 꽃, 메아리, 햇살 등 연구자의 정제된 체험 속에 담겨져 있는 자연의 생성 이미지에서 예술의 생동감과 서정적인 소재를 찾으려 하였다. 그 안에 표현된 것은 부족하고 미흡했던 나의 순간들이며 다시 채워져 나가기 위한 겸손의 과정이다. 그리고 자연이 주는 관대함과 항상 변화하는 모습에서 새로움과 희망에 대한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려 하였다.

연구방법은 숲과 바다가 자연이 되듯이 흙의 점성을 이용해 작은 덩어리들이 하나의 형체를 이루며 공간과 색을 통해서 조형적 사색을 할 수 있는 심미적(審美的)제안을 하려 하였다. 또한 생성의 질서가 연결되어 탄생을 의미하는 것처럼 유기적인 곡선은 나의 과거와 현재를 나타내고 다시 미래를 지향하는 의미로서 상승적 형태를 작업의 모티브로 사용하였다. 또한 다양한 색을 통해 현대인의 다양성과 내면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테라시질레타를 이용해 파스텔톤의 편안하고 부드러운 색감을 의도하였다. 그리고 산

화철과 분무 시유, 붓 터치를 통해 색의 깊이를 조절하고 동유를 시유하여 자연의 본래적 모습 즉 평안과 생동감을 담고자 하였다.

## II. 本 論

### 1. 生成의 意味

생성이란 비존재가 존재로 되어 간다는 언어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름조차 없던 무언가가 뇌를 자극시키고 존재감으로 다가올 때 기쁨이 되고 슬픔이 되며 행복하게 되는 순간이라 생각한다. 마치 한 인간의 선행은 기쁨이 되고, 죽음은 슬픔이 되며 작은 꽃 하나에 행복을 교감하게 되는 것처럼 인위적이지 않을 때 그 존재는 더 가치 있게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듯 생성이란 인간의 감정을 움직이며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던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에 대한 깨달음과 예술적 표현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창조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감상하다 “라는 의미에서 “깨닫게 된다.” 라는 높은 존재성은 동·서양의 철학과 예술 속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으며 급변하는 현대인의 내면에 격물치지(格物致知)의 자세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한다.

이러한 예술에 대한 반성과 생성에 대한 의미는 “이 사회에서 우리 자신에게 무엇을 위해 사는가?” 라고 반문하게 한다. 많은 답들 중 아마 행복이라는 단어가 당연 으뜸일 거라 생각한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지식을 탐구하고 노동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과 연속적인 네트워크(network)을 갈망하고 욕망을 갖게 된다. 그것은 현대인의 일상이라는 작은 점들이 보이지 않는 관계를 형성하고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과 같다. 하지만 오랜 시간 자연인에서 목적의 수단으로 행복을 찾게 되었고 판단의 기준이 점차 불분명해져 버렸다.

사람을 만나는데 있어서도 개인의 기준과 가치를 두고 사람을 대하고 있

다. 그만큼 도시는 정서적으로 메마르고 황폐해져 가고 있다.

우리가 찾는 소중함 들은 항상 변하지 않는다.

속도에 밀려버린 인간이 그러한 것을 잊어버리고 대하고는 있지만 자연을 진실하게, 인간을 순수하게 바라봤던 처음의 모습이 더 이상 변질되기 전에 삶에 대한 작은 것부터 기쁘게 받아들이고 방향을 제시 할 수 있다는 것은 자연을 감상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는 생성의 본래 의미라고 말할 수 있다.

## 2. 生成 이미지의 造形的 考察

자연에 대한 관찰은 작가의 생활의 한 부분이며, 그것은 그의 형태에 관한 지식을 확장하고, 그를 새롭게 만들며, 공식적인 방면으로 제작하는 것을 막으며 영감을 제공해 준다.<sup>1)</sup> 이러한 조형 사고에 있어 J. Dewey는

첫째, 관찰의 원리는 시각 작용에 의해 구체적인 대상에서 조형에 관계되는 것을 찾아내는 일이며, 감동의 바탕을 확장 시켜 줄뿐만이 아니라 사상과 작용의 기반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둘째, 상상의 원리는 대상을 통해 이미지를 형성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게 해주는 조형사고의 구실을 담당한다고 했다. 이는 상상은 탐색기능과 변화기능에 의해 전개되는 것이며 상상 활동의 실제에 있어서 “탐색과 변화”의 기능은 상호연관성을 맺으면서 전개된다는 것이다.

셋째, 변용의 원리는 인간의 “지혜”에 의해서 “체험”에 “가치변용”을 일으키는 총체적 과정이며 상상의 원리와 함께 조형사고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지혜에 의한 자율성의 확보는 조형사고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 짓게 하며 완성된 조형 작품으로 해결된다고 하였다.<sup>2)</sup>

住1) 김수평, 『조형의 원리』(성공회출판, 1976), pp. 30

住2) 김수평, 『조형의 원리』(성공회출판, 1976), pp. 33

오늘날 현대인이 집 안에서 꽃을 키우거나 동물을 기르는 것은 그러한 인간 본연의 모습이며 함께 하고자 하는 본능이라고 생각한다. 이전과는 달리 단순히 대상을 ‘가지고 있다’는 소유의 의미가 아닌 ‘돌봄’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심리적 작용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현대인의 고독하고 외로운 내면을 반영하며 예술에 있어서 조형 작업의 필요성을 말해 준다. 실제로 정서적으로 결핍 되거나 사회성이 결여된 사람들이 조형 작업을 접하고 즐거으로써 심리적 위안과 병적 치유에 효과적인 부분들이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자연과 단절되어 버린 채 살아가는 현대인의 내면에 자연의 모습을 상상하며 즐기는 일은 예술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며 예술이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1차적인 범위에서 그 의미를 형상화하는 가능성인 것이다. 따라서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자연적인 대상들을 멀리 둘 수밖에 없는 현대인의 삶에 조형적 예술을 가까이 두어 ‘수단’으로서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존재’ 함으로써 살아간다는 사회적 가치를 조형 예술의 방법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 3. 生成에 관한 作品探究

1980년대 이후 활발한 조형도자 작품의 전시 발달은 매우 의미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생성과 관련된 작품으로서 오천학의 도자 세계는 서정성과 원시성을 환기시키며 자연의 원초적인 생명력을 끌어낸다. 【도판 1】에서 보이듯 작품의 생동하는 기운은 그의 작업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며, 항상 변화하는 자연의 속성을 작업 과정에도 반영하고 있다.

류남희가 선택한 자연의 이미지는 대체로 나무의 형상, 그 줄기와 잎들, 그리고 파도와 마모된 돌들이다. 【도판 2:3】에서 그는 이러한 주제들 속

에서 약동하는 생명의 숨결, 싱그럽고 밝은, 신선하고 순수한, 강인하게 분출되는 이미지들을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며 자연과 자신의 주관을 결합시켜 새로운 자연을 외적으로 표출한다.

하늘로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것 같은 이명순의 작품은 인간과 사랑이라는 제목에서 보여 주듯이 열정적이며 따뜻하다. 【도판 4】에 표현된 것은 자신의 내면에서 상상한 것들이며 뻗어 나가는 형태는 자유로움에 대한 표출이다.

일본이 1990년대에 들어서서 버블(Bubble) 경제가 파탄하여 사회의 침체 분위기가 공예 계에도 영향을 끼쳤지만, 다시마 에츠코를 비롯한 몇몇의 작가들은 의연히 각자의 작품 세계를 구축하여 왔다. 최근의 다시마 에츠코는 백화장토를 바르고 유약을 입히지 않은 도자와 불투명한 유리를 소재로 식물에 나타나는 형태를 기호화하여 자신의 포름으로 재구성한 작품을 보여주고 있다. 【도판 5】에서 그는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단어 'cornucopia',는 모든 생명의 이미지를 주제로 하고 있으며 기능과 장식을 목적으로 하는 도예가 아닌, 소재와 형태에 대한 인식을 보다 고양시키고 있다.

【도판 6】 Dynamic of nature 손경자의 작품은 자연의 역동성과 에너지를 유감없이 보여 주고 있으며 흙의 물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작가의 태도를 느낄 수 있다. 【도판 7】 work80-1 김종영의 조소 작품은 유기적인 형상의 작품으로 자연의 생명감을 전달한다. 자연의 구체적인 대상인 꽃, 새순, 나뭇가지 등의 형태에서 기운과 울동 감을 느낀다. 개성이나 독창성에 대해 지나친 관심보다 자연이나 사물의 질서에 대한 관찰과 이해에 더욱 관심을 가졌던 그의 작품의 깊이와 구조적인미를 찾을 수 있다. 【도판 8】 문은아의 봄의 소리는 다양한 색상과 자유로운 구성으로 봄이라는 계절의 생동함과 따뜻한 이미지를 전해주며 자연에 대한 작가의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읽을 수 있다.

현대 조형 작가들에게서 동양의 자연에 대한 ‘기운생동’의 개념을 이해하고 정서를 표현하는 과정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새로운 접목과 시도를 통한 도자 재료의 가능성도 발견하게 되었으며 조형 도자 작가들이 과거의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현대사회가 만들어낸 이미지를 자연에 대한 통찰과 사색함으로 내면적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 예술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생성의 의미를 본 연구에 새롭게 접근하고 조형적 언어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 참 고 도 판



【도판 1】 No. 5 <오천학작>  
2003



【도판 2】 성장 <류남희작>  
1995



【도판 3】 태동3 <류남희작>  
1995



【도판 4】 인간과 사랑Ⅱ <이명순작>  
2001



【도판 5】 Cornucopia II <다시마에즈코작>  
2001



【도판 6】 Dynamic of nature <손경자작>  
2003



【도판 7】 work80-1<김중영작>  
1979



【도판 8】 봄의 소리 <문은아작>  
2001

### 3. 試作品 制作 및 說明

#### 1) 制作意圖

자연이 변화되어 가는 모습은 언제나 생동감과 강한 에너지를 준다. 그러한 자연에 대한 감동을 사색하고 체험을 통해 조형의 형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마치 생성의 작은 부분들이 큰 의미를 만들어 내 듯이 본인의 내면에 있는 단편들이 창조적 과정으로 여과되고 표현됨으로써 성숙한 인간으로 발전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숲, 나무, 잎, 꽃 등 자연의 소재를 작품의 모티브로 하였으며 거기에 따르는 공간과 형태에 대한 의미를 조형의 원리로 표현하고 정체성을 찾으려 하였다.

첫째, ‘식물의 모습’에서 생성의 조형적 개념을 재해석 한다.

아름다움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며 더욱 가치 있게 생각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조형적 방법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둘째, 반복적 행위를 통한 생명의 영원성을 형상화 하였다.

식물군이 갖는 담대함과 생명성을 작은 점토로 쌓아가며 생성의 에너지를 표현하였고 유기적이며 자연스러운 형태는 새로운 공간구성을 창조하게 되며 누구나 자유롭게 조형적 의미들을 생각할 수 있는 연결의 고리들을 표현하게 되었다.

셋째, 현대인이 잃어버린 자연과 정서를 색을 통해 표현하였다.

현대인은 미디어와 정보에 노출되어 있으며 자극적인 색들로 인해 대상에 쉽게 피곤함을 느끼고 있다. 작품은 자연에 가까운 색상을 표현하기 위해 테라시질레타와 동유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사용하게 되었으며, 우리가 자

연에서 기억하고 느꼈던 마음의 평안과 심리적인 위안들을 재발견하고자 하였다.

넷째, 조형도자의 치유<sup>3)</sup>적 의미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흙을 통한 작업이 인간의 내면을 움직이고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풍요와 본래적 가치들을 공유하고 새롭게 표현됨으로써 예술이 사회적 약자에게 보살핌의 의미로 다가가고 적용되어질 수 있다는 조형예술의 새로운 가치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

住3) Kabat-Zinn, Jon , 『명상과 자기 치유』, 장현갑, 1998, p.267 참조.

## 2) 制作過程

### (1) 胎土

본인이 추구하는 조형은 구조적으로 내화성과 점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조합토를 선정하였으며, 제작 과정에서 건조수축과 소성 시 변형과 내화도에서 비교적 안전한 조합토로 제작하였다. 또한 조형 형태상 작게 빚어져 올라가고 곡선적인 부분을 많이 나타내어 작품의 공간성과 구조적인 형태를 표현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표 1> 조합토의 조합비

(%)

원료	장석	규석	도석	홍콩점토	카올린	규회석	샤모트
조합비	5	15	20	35	15	3	7

### (2) 成形

식물군의 모습에서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는 생성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점토를 작게 뜯어 흙의 점성을 가하며 자유롭게 쌓아 올라가는 ‘자기 유사성’<sup>4)</sup>의 형태를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성형방법은 구조적인 부분들을 표현해 나가는데 적용되었고 작품의 큰 특징이 되었다. 또한 얇은 기벽의 성질을 보완하기 위해 최대한 성형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였다.

의도된 형태보다는 순간 떠오르는 공간의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하여 새롭고 창조적인 공간과 개념들을 만들어 가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었다.

비어진 공간을 통해서 상상할 수 있음은 감상자에게 전가하였다.

住4) 신우석, 『회화 작품에 나타난 프랙탈적 요소분석』, 목원대학교 대학원, 2004, p.10 참조.

### (3) 裝飾 및 施釉

자연을 닮고 거기서 정신적 편안함을 갖고자 했던 이유가 본 작품의 주목적이었기 때문에 부드럽고 안정적인 색상을 찾고자 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했었던 나무나 꽃을 봤을 때 느꼈던 자연의 변화들을 그대로 나타내고 그 순간의 감정을 색상을 통해 표현하려고 하였다.

전체적으로 유약의 착색을 돕고 색상의 깊이를 좀 더 두고자 1차 소성 후 산화철을 물에 섞어 모두 닦아 내었다. 흑유로 재벌 된 상태의 작품은 테라시질레타<sup>5)</sup>와 안료를 섞어 붓으로 칠하고 분무시유를 재차 한 후 3차 소성하였다.

테라시질레타 <표 3,4참조>는 식물 자체가 갖는 이미지와 특성을 살리고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운 색상보다는 부드럽고 아늑한 분위기를 주기 위해 선택하게 되었다.

나머지 작품은 청·녹색의 생유(生釉)<sup>6)</sup> <표 2참조>를 사용하여 자연에서 느껴지는 청량감과 본래의 이미지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연구표는 다음과 같다.

---

住5) 김병역, 『도예장식기법』, 태학원, 2002, p. 118 참조.

住6) 한길홍 외3인, 『도자조형예술』, 서울산업대출판부, 1998, p.19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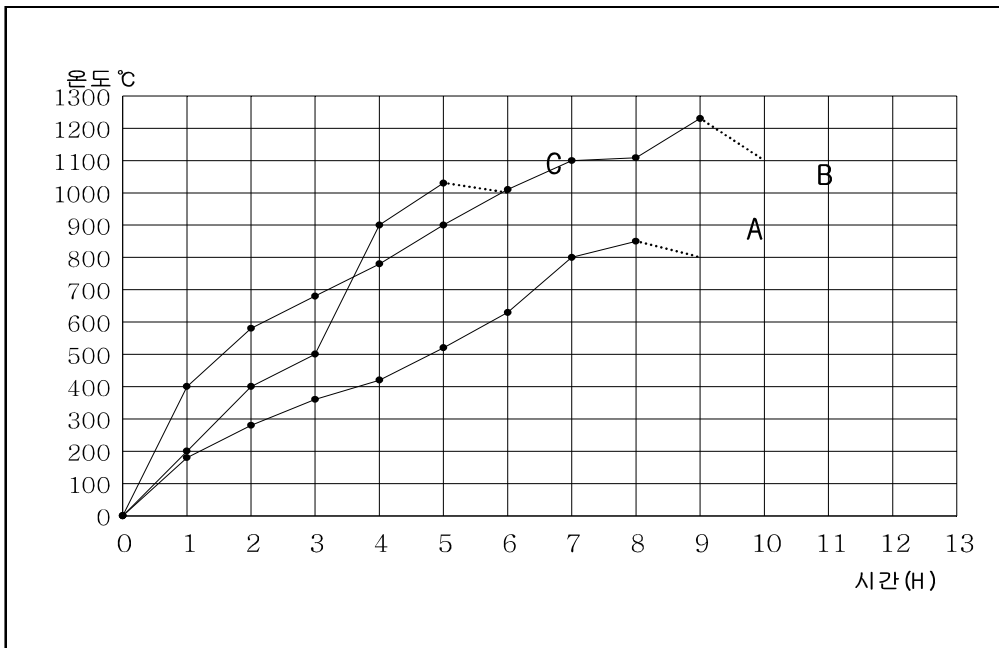


#### (4) 燒成

1차 소성은 충분히 건조시켜 1.0m<sup>3</sup> 가스가마에서 850 °C로 초벌구이 하여 채색도와 흡수율을 높이고 시유가 용이하게 하였으며, 2차 소성은 1.0m<sup>3</sup> 발색의 효과와 안정도를 높이기 위해 기물이 크고 흑유로 시유한 것은 가마의 중앙으로, 동유는 가마의 하단에 재임하여 1250°C 가스가마에서 산화소성 하였다.

3차 소성은 2차 소성에서 흑유로 소성된 작품에 테라시질레타를 시유한 후 1050°C로 0.5m<sup>3</sup> 가스가마에서 산화소성 하였으며 기물의 크기를 고려해서 서서히 냉각하였다.

<표 5> 소성 온도표



A: 1차 소성      B: 2차 소성(산화)      C: 3차 소성(산화)

### 3) 試作品 説明

#### [시작품 1] 생성-氣運



조합토, 흑유, 테라시질레타 / 1250℃ 산화소성 / 520×300×710mm

지면에 닿은 세 개의 다리는 생명의 기운과 함께 하늘로 뻗어 나가는 형상을 하고 있으며, 현대인의 움츠리고 단조로운 삶에 생동하는 봄의 기운을 느끼고 삶의 에너지가 되었으면 한다.

[시작품 2] 생성-공명



조합토, 흑유, 테라시질레타 / 1250℃ 산화소성 /470×300×650mm

메아리의 과장을 생각하며 성형 과정에서 부피감을 주고 마치 여러 사람의 메아리가 커다란 파이프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상상을 공간 구성을 통해 표현하게 되었다.

[시작품 3] 생성-動



조합토, 흑유, 테라시질레타 / 1250℃ 산화소성 / 520×380×720mm

한 여름 도라지꽃은 생명의 끈질김과 자연에 대한 관심을 나에게 주었다. 그리고 밤하늘의 은하수가 되어 다시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유년시절 자연을 보고 느꼈던 경외감과 감동을 흙의 리듬을 타고 표현하고자 했으며, 자연이 균락을 이루듯 인간도 혼자 존재하지 않으며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조형적 의미로서 해석하고자 하였다.

[시작품 4] 생성- 고요함



조합토, 흑유, 테라시질레타 / 1250℃ 산화소성 / 400×300×710mm

자연의 고요함은 쉽기도 하며, 어느 순간 우리의 지각을 깨운다.  
나무의 굽은 가지와 위로 퍼지는 형태를 흙을 통한 공간으로 형상화하고,  
흔들리는 나무를 생각하며 자연의 색을 담고자 하였다.

[시작품 5] 생성-빛



조합토, 흑유, 테라시질레타 / 1250℃ 산화소성 / 500×400×800mm

작은 틈에도 어둠을 밝히며 자신의 존재 보다 다른 것을 더 돋보이게 하는 햇살. 끊임없이 이어진 점토들은 상승적인 곡선의 형태를 만들며 햇살의 자유로움과 따뜻한 움직임을 표현하였다.

[시작품 6] 생성- 관계



조합토, 동유 / 1250℃ 산화소성 / 500×220×230mm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 속에서 너와 내가 관계를 맺고 또 다른 에너지를 끊임없이 생성한다.

고궁을 거닐며 봤던 버드나무의 이미지를 생각하며 하늘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형상화 하고자 하였다.

[시작품 7] 생성-향기



동유 / 1250℃ 산화소성 / 250×210×380mm

살아 있는 생물체는 각각의 고유한 향기가 있다. 흙, 바람, 나무,  
물까지도…….

우리들이 갖고 있는 향기들은 어떤 것일까?

모란꽃의 의미를 표현해 보며, 마음을 움직이는 향기가 되었으면 한다.

[시작품 8] 생성-바다



동유 / 1250℃ 산화소성 / 150×150×480mm

바다는 부드럽다가도 거칠다가도 평온해 지기도 하는 인간의 얼굴이며, 깊이 있게 들어가면 미지의 세계에 홀려 빠져 나오지 못하는 중독된 공간이 기도하다.

양귀비꽃의 이미지를 물레와 쌓기로 성형 후 조형적 의미로 해석해 보고자 하였다.

[시작품 9] 생성-思索



동유 / 1250℃ 산화소성 / 500×220×230mm

어른이 된 우리는 대부분 변해 버린 자기의 모습만큼 동화 속 의미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힘든 여정이 지난 후에야 작은 것들에 대한 소중함이 있음을 알게 된다.

숲의 단편을 작게 이미지화하여 어린시절 읽었던 이야기들을 함축 하고자 하였다.

[시작품 10] 생성- Passion



조합토, 흑유, 테라시질레타 /1250℃ 산화소성/400×300×650mm

열정은 우리에게 활력을 준다. 젊은이에게도 나이 든 이에게도…….  
현대인의 단조로운 삶을 삼각 구도를 통해 바라보며 지금 살아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에 행복하며 감사함을 느낀다.

### III. 結 論

자연은 우리에게 항상 경외감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예술의 세계에서는 발생의 모체가 되어 왔다. 그래서인지 풀리지 않는 일상의 일들은 자연의 법칙 안에서는 쉽게 해석이 되곤 한다.

본 논문은 현대인의 정서적인 부분을 자연의 섭리 중의 하나인 ‘생성’이라는 주제로 재해석 하는 과정이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자연의 소재에서 점철된 조형을 통해 현대의 정신적 문제에 접근할 수 있었다.

일상에서 겪는 정신적인 문제를 예술이라는 범주 안에서 변용할 수 있었으며, 예술이 갖는 사회적 기능에 부합하는 활동을 경험하였다.

둘째. 이미지를 상상화 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조형의 논리를 가질 수 있다.

본인이 경험했던 자연에 대한 기억들에 식물의 자유스러운 형태와 생명의 변화를 조형적 작업에 이입하면서 인간은 본래 자연과 친밀한 대상이며, 같은 선상에서 서로를 보호하고 닮아가려 할 때 영원한 존재로 남을 수 있다는 조형적 논리를 깨닫게 하였다.

셋째. 자연 환경에 대한 애착심을 더욱 고양하게 되었다.

연구 과정을 통해서 자연에 대한 예술적 소재로서의 가치뿐 아니라 생활에 있어서 자연생태계가 주는 이로움과 소중함에 대한 고찰을 하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우수한 도자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도자기를 통한 조형의 도입에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대 도예의 거시적

안목은 도자기의 물성을 가지고 대중과 함께 현실에 접근하며, 생성 이미지에 관한 조형의 시도를 통해 조형적 가치와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며, 또 다른 미래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도자조형은 시대적 필요성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한 시대를 풍미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參 考 文 獻

- 박영택, 『식물성의 사유』, 마음 산책, 2001.
- 오쇼 라즈니쉬, 『더 북』, 들녘, 2004.
- 김수평, 『조형의 원리』, 대한성공회출판, 1976
- 김용옥, 『노자와21세기』, 통나무, 2000.
- 서성록, 『동서양 미술의 지평』, 재원, 1999.
- 杉山明博, 외1인, 김인권 역, 『조형형태론』, 미진사, 1994
- 김영기, 『한국인의 조형의식』, 창지사, 1994
- 임창섭, 『현대공예의 반란을 꿈꾸며』, 신구문화사, 2001.
- 스에나가타미오, 『마음을 치유하는 컬러테라피 색채심리』, 예경, 2001.
- 김병익, 『도예장식기법』, 태학원, 1999.
- 한길홍, 외3인, 『도자조형예술』, 서울산업대출판부, 1998.
- 오성규, 『산업사회의 형상적 이미지를 주제로한 도자조형 연구』, 서울산업대 산업대학원도예학과, 2003.
- 황영주, 『나무의 생명력을 통한 유리조형 연구』 남서울대 디지털정보대학원, 2003.
- 신우식, 『회화작품에 나타난 프랙탈적 요소분석』 목원대 대학원, 2004.
- 김성순, 『자연의 성장, 운동과 변화에 따른 조형성 연구』. 성신여대 대학원 조소과, 1988.
- 김 준, 『자연의 형상을 통한 정신성 표현의 조각작품 제작연구』. 서울대 대학원 조소과, 1992.

# **ABSTRACT**

## **A Study on the Formative Ceramic through the Image of a Creation**

**You, Myung Hwa**

**Dept. of Crafts**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A human being has been influenced by nature, but it affects not only material richness but also spiritual part. But we are indifferent to thankfulness and value about nature due to rapidly industrialization.

We should discovery and ruminate on life and vividness of nature to enhance our life and go for good life.

This thesis studies possibility of art in being base on these themes with shaping a impression of nature and sorrow as the formative arts. It tell us that we need a change of view which should pay attention to the social function and value of modern ceramic art .

we need to think over important things that we should keep such as

spring flowers stars trees, sunlight.

Abstract expressions are form part of stimulating nostalgia about nature and visualizing vitality of nature at the same time . So that, I try to show a modeling method piling clay using viscosity.

I usually use TerraSigillate to express a nature color tone which is lyrical and comfortable feeling and partially put glazing raw glaze of blue and green color.

I love nature much better than before through coexistence of man and nature. I try to define living together by using formative arts.